



독도를 지키려는

독도 소식지 제30호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 2018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TEL: 051-466-8761, FAX: 051-206-8761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제간30호 발행자 편집자: 이상훈 /부산광역시동래구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 (온천3동.부원A)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주)동아P&P (051)807-0600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 소식지 30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시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창간로부터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 관련 성명서



독도 이상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힘이 있거나 정치인이 잘 하면 **국민들이 이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나라가 힘이 없고 정치인이 잘 못하는데 국민도 안 하면 나라는 망 한다. 식민지 역사를 배운 사람은 **위안부. 징용. 공출제도를 알 것이다. 나라를 못 지키면 또 다시 그 시절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것인가?** 나라가 잘 못 되면 최종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위안부. 징용. 공출제도가 다시 올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도에 독도로 본적을 이전하고 독도운동을 하는 독도 이상훈입니다. 독도를 지키자고는 하면서 **독도를 어떻게 해야 지켜진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독도단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빼앗기 위하여 여러모로 음모를 꾸미며 국제사회에 일본 땅이라고 허위 홍보를 하는데 역대우리정부는 일본의 공격을 무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국민들은 축구 야구를 응원하고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하면서 독도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 있고 알아야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독도의 위험성을 알고 들고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도가 70% 넘어갔다.** 일본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조업도 해양조사도 우리 마음 되로 못하게 합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들은 일본명칭이나 리昂쿠르암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독도로 표시는 되는 지도는 드뭅니다. 독도를 지킬 방법은 본지3면 서명운동을 정부가 시행하면 독도는 지켜집니다. 본지 4면에 개발안처럼 개발해서 사람 살게 하면 독도 지켜집니다. 역대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본다고 못 했습니다. 정부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후원금 주신 분

나우현	부산시동구조방로	5,000원
민종규	부산시북구모라동	30,000원
강종호	부산시북구덕천동	15,000원
임현학	부산시남구옹호동	9,000원
이성만	개인택시	10,000원
백국진	유신운수	7,000원
박용원	부산시남구문현동	21,000원
윤예준	부산시서구남부민동	20,000원
이대근	극동택시	15,000원
조호용	영남택시	5,000원
고종렬	대흥택시	6,000원

日 '독도는 일본땅' 망언, 상설전시관 도쿄 한복판에 연다



[중앙일보] 입력 2017.11.27 21:10

수정 2017.11.27 21:18

박광수 기자



일본 도쿄, 히비야 공원 내 설치된 '시세이 회관' (시정 회관). [사진 도쿄관광재단]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담긴 상설 전시관을 도쿄(東京) 히비야(日比谷) 공원에 연다. 27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내년 3월 중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히비야 공원에 있는 시세이(市政) 회관에 독도와 다오위다오(釣魚島 · 일본명 센카쿠) 열도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여당 내 정부가 영토교육을 위해 전시 활동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많은 일본 국민이 방문하기 쉬운 장소에 전시관을 설치해 다케시마(竹島 · 일본 주장의 독도명)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에 대해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히비야 공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사

무실과 일왕 거주지인 황거(皇居)에 둘러싸여 있어 회사원들과 관광객들이 오가는 장소 중 하나다. 들어설 전시 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없다. 다만 통신은 전시 공간이 100m² 크기로, 무료 입장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일본 정부는 전시관에 '독



도쿄 히비야 공원 내 시세이 회관 위치. 일본은 이곳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상설 전시관을 열 계획이다. [사진 구글지도]

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해온 고문서와 고지도 등을 전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다오위다오에 관해서는 일본이 1895년 이 지역을 자국에 편입하기로 했다는 문서와 일본인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日 '독도는 일본땅' 망언, 상설 전시관 도쿄 한복판에 연다

"샌프란시스코조약 근거한 일본 독도 영유 주장은 잘못"

송고시간 | 2017/12/13 11:30



독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산=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위해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계명대 이성환 교수는 13일 대구한의대 학술정보관에서 '독도 연구의 쟁점 · 독도연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독도문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란 주제 발표에서 "일본은 전후 영토 범위가 확정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독도 영유권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약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정당하고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관할한 적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샌프란시스코조약(제2조 a항)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이 아니라는 해석을 근거로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보면 제2조 a항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영남대 송휘영 교수는 '조선국교제시밀내탐서와 근대 조일관계 속의 독도'라는 주제 발표에서 "내탐서는 단순한 국교교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 강력한 무력행사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전략적 정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탐서는 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1870년 만든 조사보고서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내탐서 13 항에 보면 당시 일본 외무성은 이미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이미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림대 이훈 교수는 '18세기 한일간의 울릉도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도시화 연구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d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2/13 11:30 송고

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이 독도 침탈을 대비해서 행사와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 합니다.

국기사랑회.
부산총사단.
대한민국상훈회.
푸에르토리코한인회.
환경21연대부산총본부.
독도국민연대.
독도문화작가협회.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랑문화회.
독도우리회.

독도정책연구회.
삼사오봉사회.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
자유풍물단어울림.
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부산연합.
대한민국도덕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독도사랑세계연대.
GPF자문화의.



1900년 대한제국(고종황제) 칙령 41호 117주년 “독도칙령의날”

독도 칙령의 날 독도 사랑 한마당

2017. 10. 25(수요일) 오후2시 초량 정발장군 동상

참여 단체 신청 : 010-4585-7600 / 010-6504-6510 / 010-8014-9887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이상훈회장



독도정책연구회
최하영회장



독도사수연합회
정종수율산지회장



독도우리회
장유정회장



자유총연맹부산지부
류재호사무처장



나라사랑운동연합회
신옥균회장



안용복기념사업회
안성관회장



도덕성국민운동본부
황상열총재



독도문화작가협회
안태봉회장



안용복기념사업회
안준길이사



푸에르토스코
이교자한인회장



독도문화사랑회
우명주회장



환경21연대
김선용회장



도덕성국민운동본부
김상훈이사



독도사수연합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입니다.)

상임고문	학술고문	협력고문	고 문	고 문	고 문	고 문	자 문	자 문	홍보대사	회 장	부회장	홍보위원장
최정현원장	김영구교수	황성일회장	장현섭유공	곽현옥약사	송정숙여사	박노분여사	문병준교수	임기병교수	가수 서희	독도이상훈	김영희	배우 나기찬
인천지회장	부산지회장	울산지회장	경기지회장	서울지회장	충북지회장	성남지부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송지영	박대희	정종수	한채훈	장태현사장	한명석소장	신한호	백미경	김석순회장	권정학	김필이여사	김선용회장	김옥희

[기고] 위안부와 독도

김진명 소설가 입력: 2018.01.04 수정: 2018.01.04 21:01:14



김진명 소설가

지금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과은 선을 쪽 그어놓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 선을 한·일 간의 국경선이라 가르치고 있다. 학교 교육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므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일본 열도는 '다케시마 탄환'의 환성으로 가득 찰 티이다.

한·미 방위조약이 있지만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상호방위조약이 있는 데다 한·일 간의 영토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 일본과의 영토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미군의 도움 없이 일본 해군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이미 1940년대에 미국과 대 평양 해전을 벌였던 일본을 이기고 우리가 독도를 안전하게 건사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전쟁을 경제학으로 설명하자면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돈을 쏟아붓는 행위인데 사실 돈이 없어 전쟁을 치르기 힘든 북한에 비해 일본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훨씬 크기만 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상대로 죽기 살기로 해군력을 키울 수 없는 일이고 보면 우리는 독도 방어를 위한 외교적·문화적 대응에 치밀해야 하고 이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독도를 영토문제라 생각하고 있는 의식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독도는 영토분쟁이 아닌 과거사 문제이다. 일본은 1895년 경복궁에 난입해 국모 명성황후를 폭행하고 기름을 부어 불태워 죽였다. 이때 우리는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10년 후인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으며 그로부터 5년 후인 1910년 나라를 병탄했다. 러므로 독도 문제는 일본의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을 구해야 할 간송 사건이 아니라 명성황후 폭행소살, 한일병탄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 침략 3대 사건' 중 하나인 것이다. 이처럼 독도

침탈은 본질 그적으로 식민지 한국 여성들 전쟁터의 성노예로 끌고 나간 일본의 반인륜적 제국주의 만행과 궤를 같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도 분쟁의 실체를 알리고 이 문제에 있어 일본 편을 드는 건 바로 제국주의적 침략과 반인류적 만행을 옹호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대인들을 보라. 그들은 끊임없이 아우슈비츠를 고발하는 문화과 영화 등으로 독일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지 않은가. 계르만 민족주의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방법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우리 외교부 관리들이 거꾸로 소녀상 은폐를 포괄적으로 내포한 합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은 귀를 의심케 한다. 외교의 기본은 국익이라 우리 외교관들 중에는 위안부는 지나간 과거이고 일본과의 안보 및 경제 협력은 당금의 현안이니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마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국익을 염두에 둔 외교관들의 실용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일 터이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는 결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닌 미래의 문제. 아니 이제 곧 우리를 덮칠 독도 무력분쟁과 연계된 문제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흥결이 있으며 이 합의를 가지고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소회를 밝힌건 너무도 잘한 일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평창 올림픽 불참과 대사 소환을 운위하고 일본 언론과 심지어는 일부 국내 인사들까지 국제사회에서의 신의를 깨는 행위라고 몰아붙이고 있지만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2015년의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두고자 한다. 첫째, 한·일 외무관리들 간의 이 합의는 노출을 꺼려한 데다 역사적 책임을 의식했을 밖에 대통령 또한 비준을 하지 않아 국가원수의 직인이 들어간 정식 문서로 작성되지 못했다.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을 규정한 빈 협약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 간 협약은 반드시 국가 의사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endorsement)을 받아 정식의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뜻뜻하지 못한

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는 것을 알면서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 까지 몰랐고 지금 알았다면 이제부터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십시오. 할 줄 모른다면 회원이 되시고 시간이 없다면 회비만 내든지 후원금을 내시면 독도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활동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비, 후원, 활동 전부다하시는 분은 더 큰 독도 지킴이가 됩니다.

010-6504-6510. ds5ean@naver.com

이 합의는 이 규정을 피해갔으므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합의의 내용을 지킬 의무가 없고 지켜서도 안된다. 둘째, 성노예라는 표현을 숨기고 소녀상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 이 합의는 역사의 진실을 숨기고 자국민에게 가해진 만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비인도적 굴욕문서인 만큼 당연히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약속의 폐기에 따른 국가 신인도 하락을 걱정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세계인들은 이미 소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 곳곳에 설치되는 소녀상을 가로막아 과거사를 숨기려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번번이 자구적 공감대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 반인류적 범죄 은폐의 시도를 내몰고 정의로운 협약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세계가 박수를 칠지언정 비난을 할 거라는 주장은 당지도 않다. 셋째, 무엇보다도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위안부는 다만 지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 다가오는 독도전쟁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유력한 외교적·문화적 무기이다. 위안부와 독도를 한 묶음으로 묶어 반제국주의의 세계적 연대를 결성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일본의 독도 침공을 사전에 무산시켜 전쟁을 막는 우리의 책략이 되어야 하고 그 첫걸음은 잘못된 위안부 협정의 폐기이다. 역사의 시간이 훌러 눈앞을 가린 아베의 안대가 벗겨지면 일본인들도 우리의 이 결정을 평가하고 고마워할 것이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전쟁을 막는 것 이상의 국익은 없기 때문에..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외에 홍보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 이용수비대를 국가최고 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뗂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 명	주 소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받은 분 이름)
네이버 독도사수대 http://cafe.daum.net/docdoinkorea
보낼 곳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01번길 12 A동 203호 (온천동부원A) 독도이상훈 우편 47825
서명받은 분 명단은 박물관에 영구보존되고 100명이상 서명 받은 문은 증서를 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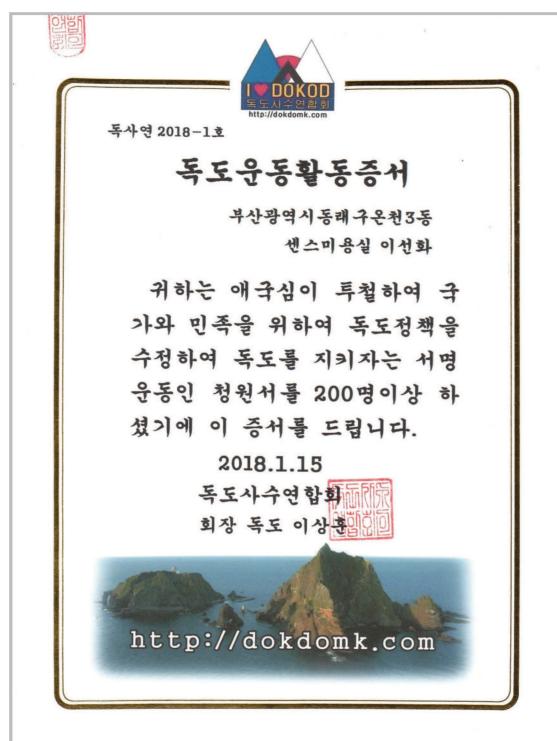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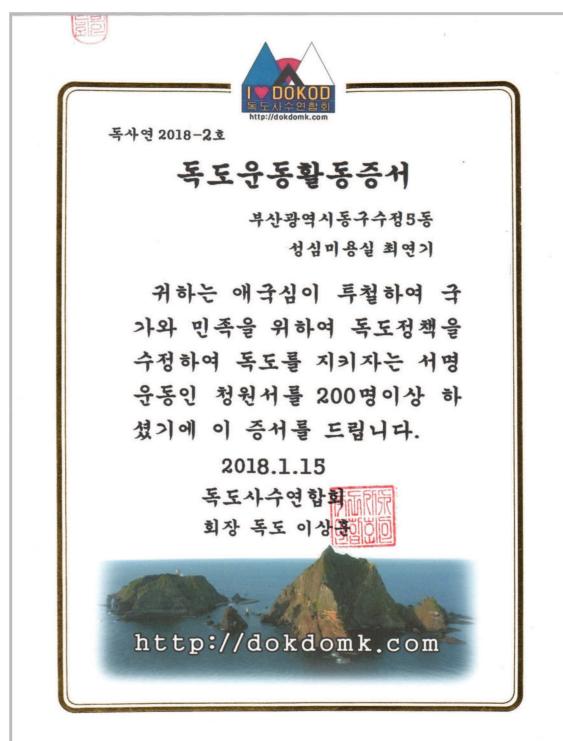
전화

010-6504-6510

우편

47825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들 (100명 이상 서명운동 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축구나 야구는 관심 있다고 응원을 하고 독도는 관심이 없다고 응원을 안 하면 독도는 우리의 영역에서 떠날 수도 있다. 주인이 지키려 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도 있다. 독도는 온 국민의 땅이다. 일본이 뺏으려 하면 온 국민이 지키려 노력을 해야 한다. 아래에 활동증서를 받으시는 분은 독도 지키기 활동을 하신 분으로 장래에 애국자로 기록이 남을 것이다. 우측명단에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장 이상훈

아래 명단에 있는 분들은 100명이상 서명운동을 하신 분인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독도운동 활동증서를 발부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사수연합회장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1. 경원전문대 27대 총 학생회 3860 명
2. 민영근 부산시동래구온천1동1 100명
3. 김상국 부산시사하구감천1동 120명
4. 최우성 DS5NAV기장군기장읍 230명
5. 이제혁 인천시(청소년독도지킴이) 1863명
6. 정삼순 고관입구수정동성결교회집사. 115명
7. 정경자 부산시중구창선동2가 108명 서명
8. 전해숙 면목3동 헤어리더 미용실 115명서명
9. 조규석 경남(창원종합운동장133호) 115명서명
10. 이진경 울산시북구 양정동 112명서명
11. 박만서 의정부시장안동 109명서명
12. 이정천 대전시유성구봉명동 230명서명 독도본적자
13. 강용관 부산시사하구하단2동 230명서명 독도본적자
14. 윤희순 울산시중구 다운동 115명(봉투2장)
15. 동일여자고등학교 NGO동아리 시흥동 산 100-4, 180명
16. 오영희 서울관악구신림12 100명 06.04.28접수
17. 민금식 경남밀양시 100명 06년5월접수(정리7월)
18. 전선희 자유시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240명서명
19. 김종기 반여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100명서명

문제인 대통령님 독도가세요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독도를 통치한다는 것을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독도에 가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가서 독도를 통치한다는 것을 보인 것처럼 문제인대통령도 독도를 순시하십시오. 독도사수연합회 일동

日외무성, 韓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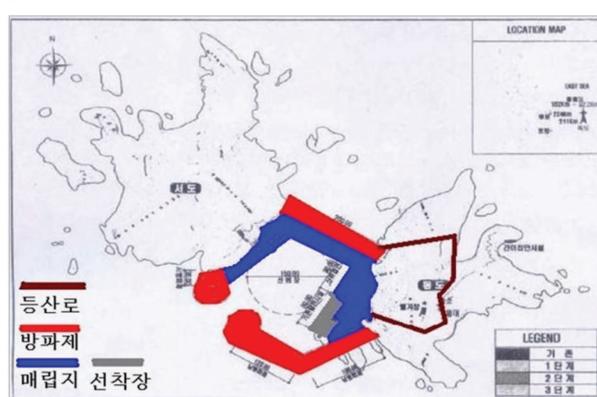
"사전동의 없었다" 반발..."영해 침범" 주장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7-05-18 10:59 송고

일본 정부가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활동에 대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한국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2000' 호가 전날 오후부터 독도 주변 수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자국 배타적 경계수역(EEZ)과 영해를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지난 1905년 '다케시마' (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그 주변 해역에 영해와 EEZ를 설정해놓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산하 제8구구 해상보안본부는 "해양2000" 호가 17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다케시마 서쪽 약 40km의 일본 EEZ에서 쇠줄 같은 물건을 바닷 속에 던져넣고 있는 것을 순시선을 통해 확인했다"며 "순시선에서 '(일본 측의) 동의가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중단을 요구했으나 한국 선박이 활동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해상보안본부는 또 "해양2000" 호가 17일 오후 5시쯤 바닷속에서 쇠줄을 끄낸 뒤엔 다케시마 서쪽 약 12km의 일본 영해에 들어갔다"며 "18일 오전 1시30분까지 일본 영해에 머물러 있었고, 오전 5시 현재는 영해에서 나와 일본 EEZ를 항해 중"이라며 전하기도 했다. 지면상 이만

독도(다케시마) 서쪽 약 12km의 일본 영해에 들어갔다.는 곳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공동수역이 좀 게 있는 곳을 말한다. 독도와 오키도 사이가 행양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

독도 개발 안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큰 섬이 두 개다. 두 섬의 거리는 약 170m이다. 붉은 것을 방파제로 하고 회색은 선착장이다. 푸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상업지를 만들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살게 하자는 개발안이다. 지금은 독도에 체류시간이 30분이다. 4~5시간 체류를 할 수 있게 하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 독도선착장을 만드신 강향희 회장님의 방파제 개발안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1. 방파제를 만들면 파도가 있어도 접안 된다.
2. 등산로를 만들어 동도정상에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내려오는 길은 북쪽 방파제쪽에 별도로 만든다.
3. 독도를 어업전진기지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
4. 서도에 10가구동도에 10가구정도 살게 한다.
5. 학교가 없으니 50~60대가 살면 된다.
6. 서도 어민숙소 까지 개방하고 나머지는 생태계 보존한다.
7. 일본은 국제재판으로 독도를 뺏으려 하니 개발하여 사람이 살면 국제 법으로 유리하다.

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독도소식지 30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이번호는 사정상 늦었습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합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http://dokdomk.com> (접수번호 : 독시연)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앞자리)	성별	사진
이 매 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 소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 (서명)

독도사수연합회 귀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우편번호 : 49384
TEL : 051-466-8761, FAX : 051-206-8761, HP : 010-6504-6510, ds5ean@naver.com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